



헛갈리는 두 개의 신호



邊龍植
조선일보 편집인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하다? 그동안 이 정권의 실세들이 즐기치게 보여준 반미(反美), 반(反)시장주의적 성향을 생각할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에 온 무디스(국제신용평가기관)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에서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들린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게 어떤 것인가. 시장이 커져 기회가 늘어

난 대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경쟁에 져서 쓰러지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자들도 속출할 것이다. 승자가 더 강해지는 자유시장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더 확대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동안 신(新)자유주의를 평등의 적(敵)이라고 배척해 온 노무현 정부가 그런 신자유주의적 시장체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니 이런 놀랄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정부가 21세기의 대세(大勢)를 인정하고 뒤늦게 현실로 유턴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기대는 열흘도 못 가 혼란으로 바뀌었다. 지난 14일부

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기적과 절망, 두 개의 한국’이란 시리즈 1번이 당당히 떠 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글이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자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이 나온다.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보다도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밀림에서도 강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승자독식체제의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밀림의 제왕인 사자보다 백배, 천배 더 잔인합니다. 밀림에는 평화가 있지만, 카지노 경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 카지노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사회입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그 이상의 표현을 찾기 힘들 정도의 글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비정한 경쟁체제인 한미 FTA를 하느니 차라리 경쟁 없는 사회주의체제가 훨씬 행복하

다는 메시지다. 정부가 한 입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다른 입으로는 자유시장 체제를 이토록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 정부가 가려는 진정한 방향은 도대체 어느 쪽인가.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고 어렵다. 그러기에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양담배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때도 사전에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론 주도층을 이해시키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충격완화 과정을 반드시 밟았다. 이번에는 그런 사전설명이 일절 없었던 것 같다. 공청회도 협상발표 하루 전날 열었는데, 그나마도 놀란 농민들이 회의장에 쳐들어가 깡판이 났다. 그뿐이랴. 한미 FTA 발표문이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카지노 경제라고 매도하는 글이 올라갔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일부에서는 심지어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FTA협상이 정부 내 자주파(自主派)들에 의해 반미 감정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이란 주장이다.

FTA 앞길에는 정치적 지뢰밭이 깔려 있다. 우선 농민문제다. 미국은 북미 FTA를 체결할 때 캐나다와는 주요 농산물을 개방에서 제외시켰지만, 멕시코에 대해서는 비록 장기간의 경과규정을 두긴 했으나 모든 농산물을 개방대상에 넣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멕시코처럼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농민 표를 의식한 여당은 벌써부터 협상을 지방선거 후로 미뤄달라고 외교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서비스분야개방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역시 가장 큰 지뢰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보듯이 집권세력의 완고한 반시장주의적 태도다. 그래서 한미 FTA로 같지, 아니면 거꾸로 같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나오는 것이다. ●